

성령 안에 걸으라 (3)

신학박사 조 덕운

[출애굽기 4:15-17]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가 백성을 향해 네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참으로 네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네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우리는 지난 주 공부에서 성령의 역사 네가지 중에서 처음 두가지에 관하여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세번째와 네번째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로 성장하게 도와줍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넷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늘 왕국으로 가는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와주십니다.

1. 성령의 역사 3: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우심

위의 출애굽기 4 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방문하시고 자신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출하도록 부르셨을 때에 하신 특별한 명령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할 말과 할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변인이 되어 이적을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적합한 사람을 불러서 미션을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해야 할 말씀과 행동에 대한 지시와 안내와 능력을 주실 것을 그에게 말씀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모세에게 하신 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던 목자 출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먼저 에집트 왕 바로에게 전하고, 40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행하고, 시내산 지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백성의 리더로서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자신의 대언자로 선택하셔서 먼저 그에게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하였을 때에 이사야는 자신이 말과 행위로 죄인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이유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서는 천사장 중에서 한 분을 시켜서 불을 들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깨끗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비로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하는 심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6:5-8]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6 그때에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집계로 제단에서 살아 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7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8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중에서 목회자로, 전도자로, 혹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이사야의 이 경험을 체험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와 목양의 미션으로 부르셨는데 자신의 죄와 부족함 때문에 감히 ‘예, 제가 가겠나이다’라고 순종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런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죄를 씻어 순전한 전환시키는 이적을 행하시고, 삶의 목적과 동기를 오직 하나님의 일하는데 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환시켜주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대언자 이사야처럼 감히 백성과 그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질책과 앞날의 비전과 거룩한 명령을 하나도 가감이 없이 명확히 전파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선택하여 파송하셨을 때에도 성령님의 큰 도움의 약속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4-10] 그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내가 너를 배 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6 그때에 내가 이르되, 아, [주] {하나님}이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7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아이니이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 내리니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9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이 날 너를 민족들과 왕국들 위에 세워 그것들을 뿌리째 뽑고 무너뜨리며 파멸시키고 파괴하며 세우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여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 자신의 손을 대시고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여 호세아, 미가, 이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대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장래에 대한 소망을 전하고, 먼 미래에 올 구원자 메시아와 그분이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와 전도자 여러분도 이와 유사한 약속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같은 약속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11-12] 그들이 너희를 회당과 행정관과 권세 있는 자에게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대답하며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러한 약속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하여 실제로 실현되었음을 봅니다. 한갓 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는 성령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큰 군중을 대상으로 복음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구약 성경의 예언 말씀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설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하여 여러 사도들과 스테반, 빌립 등의 전도자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주 예수의 복음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 나아가서 온 로마 제국의 영토에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권능으로 자신이 여러 지방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으며, 이는 오직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언행과 표적과 이적이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로마서 15:17-19]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분들에게는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이 약속됩니다. 즉, 말씀의 은사와 담대함의 은사, 때로는 계시의 은사, 그리고 혹은 병 고침의 은사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자신의 왕국이 이 땅에서 확산되고 융성하게 되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전지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질그릇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업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 힘든 신비함이지만, 다만 “주여, 연약한 이 질그릇이라도 소용이 된다면 쓰시옵소서”라는 겸손한 심령으로 매일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특별한 미션을 주시면서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을 약속하신 기억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충분히 극복하도록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 성령의 역사 4: 우리의 천국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도우심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큰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제자가 될 신자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도록 함으로써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집에 두고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아이들을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은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약속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여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빌립보서 1:6]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13:5]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될 것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여러분은 그 순간부터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인생 길을 끝날 때까지, 혹은 죽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면 바로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축출하지 않는 한 그분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며, 부모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길을 함께 걷는 것처럼, 목자가 양 떼를 항상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인생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도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에서 성령님은 우리과 악의 세력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울 때에 능히 버티어서 자신의 참 신앙을 지킴으로써 마지막 날에 주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과 영적 힘을 충분히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10-13]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우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둠의 무리가 이처럼 득세를 하여 불법을 강요하며, 개인의 자유와 법질서를 파괴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몰아가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나서 수세기 전부터 준비해온 그들의 계획을 공공연하게 실행하고 있으며, 온 세상을 사탄의 발 밑으로 몰아 넣는 일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온 인류 사회를 어디로 몰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조지 오웰과 올더스 헉슬리가 오래전에 미리 묘사했던 통합된 세계 정부 "Brave New World"로 만들고자 이러한 패악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성령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아서 지금 온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큰 흐름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억압하고 그들이 시도하는 일들이 실패로 좌절시켜 주시도록,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전사들의 노력을 도와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실 때까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뉘지 않고 서로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현세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